



축산업계

소

식

농림수산식품부

AI 조기 종식을 위한 방역조치 보완·강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는 양산지역내 발생한 AI가 더 이상 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그간 추진해 온 방역조치를 보완하고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AI 조기종식에 총력을 기울인다. △전국 가금류 도축장(61개소) 출하 닭·오리에 대해 임상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증명서 미첨부 닭·오리 도축금지 조치 △ 전국 상설 닭·오리 판매 재래시장(83개소) 자진폐쇄 유도 △재래시장·가든 식당 등에 닭·오리를 운반해 주는 차량에 대한 세척·소독 확인 강화 △AI 진정시 까지 닭·오리 분뇨의 사육시설 밖으로의 반출제한 △친환경 오리농법 시행자제 및 오리농법이 시작되는 6월초부터 오리농법에 투입된 오리의 주기적 점검(검사) 실시 △매주 수요일 “전국일제소독의날” 실시하는 공동방제단(3,878개반)의 소규모 농가 소독활동이 강화된다(본문 98페이지 참고).

대한의사협회

조류인플루엔자 문제에 대한 심포지엄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AI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적절한 대처법을 제시하고자 5월 20일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문제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본 공청회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관리과 이오수 박사는 근거 없는 보도, 과장 보도에 현혹되지 말고, 검역원이 발표하는 신빙성 있는 보도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의협은 ‘닭·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행사’를 자체적으로 갖고 국민들의 지나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응원했다.

(사)대한영양사협회

제19대 회장으로 김경주 영양팀장 취임

(사)대한영양사협회는 지난 5월 24일(토) 롯데호텔서울(소공동 소재)에서 협회 임직원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손숙미 회장 이임과 김경주 회장 취임에 따른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김경주 회장의 임기는 2008년 5월 30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간이며, 11만 3천여 영양사와 함께 국민건강과 올바른 식문화 발전을 위한 활동 등을 하게 된다. 손



▲ 김경주 회장

숙미 전 회장은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됨에 따라 회장직에서 물러나 앞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안심하고 드세요

우리나라 단체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 전문가 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손숙미, 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국내산 닭고기, 오리고기 및 계란이 안전하므로 안심하고 섭취해도 좋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은 닭을 생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없으며, 대부분 160~180°C의 기름에서 튀기거나 100°C 이상에서 5분 이상 익히는 조리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안전하며 설사 AI감염 닭이 시중에 유통되어도 조리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사멸되어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으므로 양질의 단백질 급원식품인 닭고기 등을 안심하고 섭취할 것을 권하였다. 또한 각 가정, 식당, 단체급식소에서 생닭고기 등을 취급하는데 사용한 조리도구(칼, 도마, 용기)가 다른 식자재와 접촉되지 않도록 교차오염 방지, 손씻기 등의 개인위생 등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가금수급안정위원회 AI 특집 생방송 화제집중 방송

가금수급안정위원회는 가금산물의 소비위축에 대응하고자 AI 안전성 홍보의 일환으로 MBC-TV 생방송 화제집중을 통해 특집방송



을 방영하였다. 이날 방송에서는 농가와 식품 종사자들의 피해 상황을 전달하며 닭, 오리고기를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였다. 또한 일본에서의 AI 발생과 이에 대처하는 소비자들의 모습을 보도하는 등 소비 증진에 초점을 맞춰 중점 보도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 명동과 광주 충정로, 춘천에서는 닭고기 시식행사가 열렸다. 이날 시식행사는 농협 목우촌이 진행했으며, 소비된 닭은 1,000마리였다. 본방송은 5월 21일 17:20~18:30까지 70분간 방송되었다.

오리데이행사 성황리 개최



가금수급안정위원회는 5월 2일 오리데이를 맞아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은 농림수산식품부 정학수 제 1차관과

관련단체장,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장 입구에 오리요리 52선 전시회와 5,200인분 오리고기 시식회를 선보여 고객 및 방문객의 관심을 끌었다. 한편, SBS 맛대맛에 출연한 박경호 한의사를 초청해 오리고기에 대한 효능에 대한 특강진행과 함께 오리고기 경매 이벤트 및 뱀리댄스 공연 등을 선보였다. 이날은 농협 목우촌을 비롯해 모란식품, 다영푸드, 주원산오리 등이 참여해 무료시식회 및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도 했다.

N.C.C. Exhibition Organizer Co., Ltd ILDEX INDIA 2008 설명회 개최



N.C.C(대표 Ladda)는 지난 14일 코엑스 전시장 아셈홀 203호에서 ILDEX 전시 설명회를 가졌다. 특히 오는 8월 27~29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인도 ILDEX'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전시 매니저인 Mr. Jobe 씨는 3년째 맞이하고 있는 ILDEX는 중국, 인도, 베트남을 돌면서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에 인도 ILDEX가 5회째를 맞이하면서 발전적인 전시회가 될 것을 자신하였다. 특히, 인도의 연평균 성장률은 15~20%이며, 현재 1인당 소비량이 닭고기 0.8kg, 계란 36개이지만 양계산업의 잠재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참가업체는

물론 참관인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건국대 식육과학연구소 즉석식육가공유통전문가 양성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식육과학연구소는 5월 7일 건대 생명과학대학 4층에서 식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즉석식육 가공유통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08년도 즉석식육가공유통전문가양성과정' 교육생 35명의 입교식을 개최했다.

건국대 즉석식육가공유통전문가과정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올해 첫 시행하며 5월 7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시간씩 매주 수요일에 이뤄지며 국내식육전문가를 비롯한 학교 전문 강사진의 이론 강의와 매회 실시되는 현장실습 그리고 해외선진지 연수를 통해 다양한 즉석 식육제품 제조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조류인플루엔자에 강한 유전자를 통한 닭·오리 개발연구에 박차

농촌진흥청(청장 이수화)은 동물에 있어서

바이러스 감염에서부터 치료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 중 바이러스 침투에서 대항 및 증식억제에 관련된 유전자(TLR3, TLR7, IFN α , IFN β , IFN γ , Mx, MHC class I, MHC class II) 총 8개 유전자의 서열변이를 조사하여, Mx유전자의 변이좌위 156군데를 발굴하는데 성공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에 강한 닭과 오리 개발과 관련하여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은 5월 중 국제축산연구소 Hanotte박사를 초청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체외에서의 맹독성 AI 저항성유전자 기능구명에 대해 집중토론을 할 계획을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의병리 국제심포지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식육의 위생관리 ·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미국 C.L.Davis 수의학재단 한국지부, 한국수의병리학회 및 대한수의학회와 공동(후원 농림수산식품부)으로 안양과학대학벤처센터(4.24)과 한국과학기술회관(4.25)에서 2일간 도축검사관 등 관련업무 담당 수의사 등 연인원 1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의병리” 주제로 국제심

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또한, 도축검사관의 지속적인 검사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국 16개 시 · 도 도축검사 담당자에게 '08.6.2일부터 6.5일까지 4일간 국 · 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가축질병의 육안병리소견에 대한 판독기술과 임상검사 및 도축검사(지육, 두부 및 내장검사) 방법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 등 단체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특별 점검 실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하절기 집단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 및 군대 등 단체급식소에 납품하는 축산물영업소에 대하여 2008년 5월 06일부터 6월 27일까지(37일간)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축산물영업소(가공업소 · 식육포장처리업소?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16개 시 · 도 교육청, 국방기술품질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협동으로 전국 일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검역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에 적발되는 단체급식 축산물 납품업체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단속에 앞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지도 · 교육 · 홍보도 병행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물등급판정소 전국 작업장 위치안내 콘텐츠 개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는 2007. 4.



24(목)부터 등급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국의 작업장(도축장, 도계장, 집하장)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콘텐츠를 개설하였다.

“작업장위치안내” 코너에는 전국의 등급판정사무실(작업장) 위치를 지역본부별 그리고 도매시장, LPC 등을 기능별로 구분하였으며, 등급판정을 시행하고 있는 도계장과 계란 집하장에 대한 위치를 제공함으로써 관련업체 종사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도 공공기관 혁신우수사례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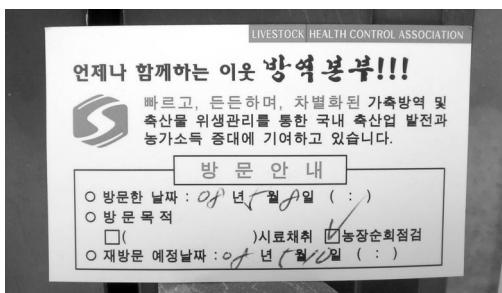
2007년도 공공기관 혁신실적평가 결과 동소에서 서비스 중인 ‘학교 단체급식 부정 납품 “끝” 축산물 검수 안심서비스’가 혁신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는 축산물등급판정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급식학교에서 등급판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발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 등급판정확인서 진위 여부와 부위별 납품내역을 검토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납품내역 등을 등록하고 검수하는 시스템이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06년도에 이어 혁신수

준 5단계를 유지·달성함으로써 명실공히 경영효율화에 앞장서는 공익형 기관으로 축산물 품질평가사업 외에도 쇠고기이력추적사업 및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등 사업다각화와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통한 식문화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고객감동경영 실현에 박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축산농가의 편리를 위하여 2007년부터 축산농가 방문 전에 전화나 우편엽서를 이용하여 방문일정을 통보해 주고 있다.

이번에는 추가로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채혈한 시료의 검사의뢰일과 검사결과 통보 예정일을 알려주고, 농장방문 시 농장주가 부재중일 경우 명함 뒷면을 활용하여 방문일정을 안내하는 등 고객감동경영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방역본부는 실용비전인 “빠르고 든든하며 차별화된 방역지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축사환경 개선지원 등 고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